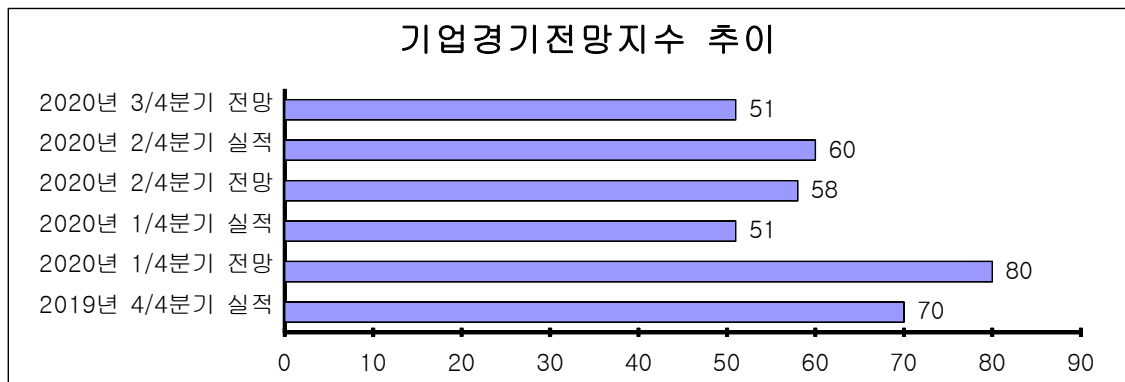


영주상공회의소(회장 조관섭)는 최근 관내 제조업체 30개를 표본대상으로 기업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2020년도 3/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는 지난 분기보다 '7' 포인트 하락한 '51' 을 기록했다. 실적추정치는 전 분기보다 '9'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기업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 ~ 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부분별 기업경기전망지수 추이

	2019년 4/4분기 실적	2020년 1/4분기 전망	2020년 1/4분기 실적	2020년 2/4분기 전망	2020년 2/4분기 실적	2020년 3/4분기 전망
체감경기	64	84	52	52	54	36
매출액	79	78	42	54	58	38
영업이익	58	78	38	50	50	43
자금조달 여건	76	78	63	64	65	65
설비투자	72	83	58	69	73	70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2020년 3/4분기 기업경기 전망은 체감경기 36, 매출액은 38, 영업이익 43, 자금조달 여건 65, 설비투자 70 이다. 대체적으로

2020년 3/4분기 전망은 2020년 2/4분기 전망보다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경기 상황 속에 코로나19 관련, 1분기 대비 2분기 전반적인 경영상황을 묻는 항목에서 ‘다소 악화’ (58.3%), ‘비슷’ (16.75), ‘매우 악화’ (12.5%), ‘다소 개선’ (12.5%)으로 대부분의 업체가 전반적인 경영상황이 다소 악화 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부문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내수·수출)’에서는 ‘악화’ (63.64%), ‘부품·자재 조달’에서는 ‘비슷’ (68.18%), ‘자금조달’ 및 ‘사업장·공장가동부문’에서는 ‘비슷’ (59.09%)이 가장 높게 집계되었다.

올해 상반기 매출과 작년 상반기 대비 몇 퍼센트 등락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질문에 상승할 것이라는 업체는 한 곳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업체들이 ‘하락’ (-80% ~ 10%)을 예측하였다. 또 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더 확대·강화해야 할 지원정책을 묻는 항목에서는 ‘내수·소비 활성화’ (38.8%), ‘고용유지·안정지원’ (20.4%), ‘금융·세제 지원’ (18.4%), ‘투자 활성화’ (12.2%), ‘기타’ (2.0%) 순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한 대응책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 묻는 항목에서는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느라 대응 여력 없음’ (56.5%), ‘대응책 마련 중’ (39.1%)으로 대부분의 업체들이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고 ‘대응책 마련해 추진 중’ (4.3%)으로 소수의 업체만이 대응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가 경제회복을 위해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을 묻는 질문에 ‘투자·소비 활성화 법안 마련’ (26.1%), ‘기업부담입법 지양’ (26.1%), ‘추경 등 코로나19 피해대응조치’ (21.7%),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19.6%) 순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피해대응조치’와 ‘기업부담입법 지양’이 국회가 경제회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로 집계되었다.

○조사기간 : 2020. 6. 2 ~ 6. 15 (휴일제외 10일 동안)

○조사대상 : 영주상공회의소 관내 제조업체

○조사방법 : 전화, FAX

○BSI의 기준치는 100. 100 초과는 호전예상업체가 악화예상업체보다 많음을 의미. 100 미만일 때는 반대임

○BSI 지수=[(호전예상업체수-악화예상업체수)÷ 전체응답업체수] × 100 + 100

○BSI전망치는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임